



‘꿈이름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107명에 장학증서 수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사옥에서 ‘KSD 꿈이름 장학사업’ 나눔 실천으로 2018년 신규 장학생 10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학증서 대상자는 전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지원형’ 초·중·고생 80명과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재양성형’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7명이 선정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초·중·고의 경우 졸업 때까지 연간 12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임지 기자



신한금융투자

케렌시아 음악콘서트 성료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31일 ‘케렌시아 음악콘서트’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점이자 문화공간인 ‘최인아 책방’에서 진행된 이번 ‘케렌시아 음악콘서트’는 신한금융투자 ‘Tops Club’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Tops Club’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을 이용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그룹 통합 ‘Tops Club’ 등급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수고객을 위한 서비스이다. 토크 콘서트와 클래식 음악 연주로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 뇌과학, 상담심리학, 음악 치료학을 전공한 케렌시아 팀이 진행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전자서식 디지털창구 도입

KB증권은 1일 부터 전 영업점에 전자서식 기반의 디지털창구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와 고객중심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창구를 통해 계좌개설을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를 종이서식에서 전자서식으로 전환하여 고객들은 보다 간편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받아들 수 있다. 태블릿을 통한 전자서식 작성 시, 전산에서 태블릿으로 신청항목과 기재필요사항 등 일부 데이터가 연동되어 고객이 일일이 모든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성시간이 단축된다. /김문호 기자

세계적 자산 감소, 경기 리스크 확대, 美-中 무역분쟁...

추가 하락 가능성... 주식 줄이고 현금 늘려야

자산하락 원인, 단기 회복 어려워 美·中 포항국 투자시 신중 기해야 ‘금리상승 위험’ 채권 비중 축소

“재앙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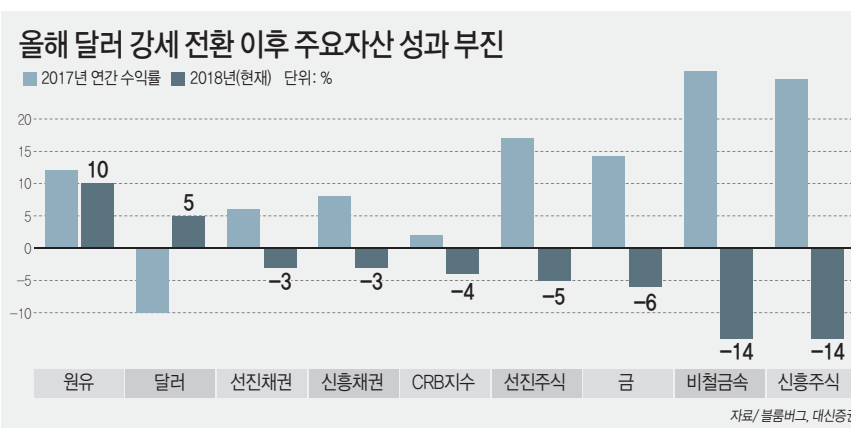
소나기를 피해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또 국내 증시가 해외증시 동조화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는 추세다. 시장을 연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 등 해외증시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시세 변동에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는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했다.

1일 대신증권 박형중 마켓전략실장은 주식자산 비중은 줄이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박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산가격 하락은 경기하강 리스크 확대, 저금리 기조 종료 및 유동성 축소,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 문제들이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가격 하락을 야기한 원인이 단기내 완화될 가능성이 작아 자산시장의 강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해야 하



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대해서는 투자시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금성 자산은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채권도 비중축소의 의견을 제시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악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비관론자들은 최악의 경우 글로벌 증시가 ‘L자(字)형’ 모습을 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은 낮더라도 쉽게 치고 올라갈 장세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

주식형 펀드에서 나올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81억원이 순유출됐다. 302억원이 새로 설정됐고 483억원이 환매로 빠져나갔다. 코스피가 반등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18억원이 이탈하며 하루 만에 순유출세로 전환했다.

수익률도 곤두박질쳤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이 1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30일 기준)은 -15.42%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코스닥지수는 23.42% 떨어졌고 코스피는 14.81% 하락했다.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에 관여하는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14.26%였다.

내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여파는 2019년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 전문가들의 설

명이다. 중국의 6%대 성장률이 위협받고, 해외수익비중이 높은 미국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미국경제의 부정적 영향도 같은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 분석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대중국 고립전략으로 한 단계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제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B증권 이은택 연구원은 “한국증시의 밸류에이션은 경기침체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0.84배)이다. 다만 글로벌 증시에 조정이나 하락이 나타나면, 저평가 매력 있다고 해도 한국증시만 홀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4분기엔 이익 모멘텀도 다소 약화된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이 환경보호 대신 경기 부양을 선택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소재업종 실적도 하방 압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 금리도 부담이다. 자본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한미 금리 차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12월 금리 추가인상은 물론 내년 3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기업 따라가던 금융업계... 이제는 해외로

올 71억달러 투자... 전년비 28%↑ 북미·유럽 지역 투자비중 급증세

금융·보험업계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해외 투자는 227억 달러였다. 지난해 상반기 237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중 금융·보험업계가 투자한 돈이

71억(31.2%) 달러에 달했다. 전년 동기 55억 달러 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금융·보험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8년 38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 140억 달러로 증가 추세다. 전체 해외투자 규모 대비 비중은 2008년 15.6%에서 지난해 31.1%로 2배 가량 확대됐다.

전체 금융·보험업 투자 대비 금융업의 비중은 85%였다. 이밖에 금융·보험서비스 및 보험·연금부문은 각각 13%, 2%였다. 업종별로는 집합투자업·증권거래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자 투자가 60억달러로 전체 금융·보험업 투자의 85%였다. 기타 금융투자업 부문의 신규 법인 설립이 늘어난 덕분이다.

여신금융업과 지주회사는 각각 전체 금융·보험업 대비 3%, 2%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및 저축기관 비중은 1%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투자가 22억 7000만달러(전체 지역투자 중 32.1%)로 전년 동기 대비 35.2% 늘었다. 영국을 중

심으로 한 유럽투자 규모는 18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5.9% 증가했다. 이 중 영국 투자가 11억 달러에 달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정은 연구원은 “해외진출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금융·보험업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기존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업의 동반 진출 형태(해외사무소 등)가 아닌 해외 법인 영업 규모 확대 및 신규 해외 영업 분야의 진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CSR(사회적 가치 책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중호 건보공단 서울본부장(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CSR포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공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책임(CSR)의 역할과 가치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CSR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1개 공공기관 및 2개 소비자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국품질보증원 황상규 국사는 공공기업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ISO26000 국제 표준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센터 우용호 소장은 ‘공기업 사회공헌 혁신모델 제안’에 대해 타기관의 모범 사례를 위주로 발표했다.

전문가 강의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비전 선포문도 함께 낭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1452가구 분양

금호건설, 도보권에 지하철역 신설 초·중·고교 인접... 녹지공간 풍부

금호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공공주택 사업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1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1452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는 ▲74㎡A 318가구 ▲74㎡B 362가구 ▲84㎡A 772세대 등이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예정)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신설역 이용 시 계양역까지 1정거장이며,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시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나란히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면적이 44%로 법정기준 보다 약 3배 가까이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커뮤니티센터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 /금호건설

는 휘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맘스카페, 바이크스테이션 등이 마련된다.

이 아파트는 검단신도시의 첫 번째 공공분양 단지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115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금은 2회 분납제(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정당 계약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채신화 기자